



3 몽골의 침략과 고려의 저항

(1) 고려 안팎의 상황

• 고려 시대에 1170년부터 1270년까지 무신들이 주도한 정권으로, 오랫동안 문신에 비하여 차별을 받아 온 무신들이 불만을 품고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어요.

나라 안	무신 정권이 들어서고 무신들이 권력 다툼을 벌였음.
나라 밖	몽골이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성장하여 고려를 위협하고 있었음.

(2) 몽골의 침략

• 몽골 사신의 피살을 구실로 고려와 몽골의 전쟁이 시작되었어요.

1차 침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려의 군사와 백성들이 귀주성에서 몽골군의 공격을 막아 냈음. 이듬해 무신 정권은 도움을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기고 몽골과 싸울 준비를 하였음. 자료 2
2차 침략	고려 백성들이 처인성에서 크게 승리하였음.
3차 침략	죽주성에서 몽골군을 물리쳤음.



▲ 몽골의 침략

(3) 몽골 침략의 피해

- 고려는 몽골과의 오랜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해졌습니다.
- 초조대장경과 황룡사 구층 목탑 등의 문화재가 불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.
- 개경 환도** : 고려는 몽골과 화친을 맺고 몽골의 요구대로 도움을 다시 개경으로 옮겼습니다.

(5) 삼별초의 저항 **자료 3**

- 삼별초는 개경에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고 몽골과 계속 싸웠습니다.
- 근거지를 강화도에서 진도로 옮기고 남해안 지역에서 세력을 떨쳤습니다.
-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에게 진도가 함락되었고, 다시 제주도로 옮겨 항쟁하였으나 결국 진압되었습니다. **자료 3** 고려는 40여 년간의 항쟁을 끝으로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간섭을 받았어요.

- 원 간섭기 고려의 모습** : 원은 고려에 그들의 관청을 설치하고 고려의 왕자를 인질로 삼아 원으로 데려가는 등 고려의 정치에 간섭하였습니다. **자료 3** 원에 있다가 고려로 돌아온 공민왕은 원이 점차 쇠퇴하자,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였어요.

(7) 공민왕의 개혁 정책

- 당시 유행하던 몽골식 옷이나 머리 모양 등의 풍습을 버리고 고려의 전통을 되살리는 일에 앞장섰습니다.
- 원이 빼앗은 고려의 땅을 되찾아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.



▲ 공민왕의 영토 수복

자료 2 강화도



강화도는 해안의 지형이 험해서 적이 접근하기가 어렵고, 도읍인 개경에 가까워서 방어하기에 좋은 군사적 요새였습니다.

자료 3 삼별초의 이동 경로



용어 사전

5 환도 (還 돌아올 환 都 도읍 도) 전쟁 등의 사태로 탄 곳으로 옮겼던 정부가 다시 수도로 돌아오는 것.

6 삼별초 원래 최씨 무신 정권의 사병이었는데, 몽골의 침략에 대항하는 정규 군으로 편성되어 마지막까지 항쟁하였음.

개념 속 이해 속

고려와 주변 북방 민족과의 관계

